

#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글 | 이한

그림 | 김정현

글 | 이한

그림 | 김정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이성계는 1335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고 어머니는 최씨였습니다. 이자춘은 원나라 쌍성총관부의 군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계는 활을 잘 쏘고 용감했습니다.



원래 함흥은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빼앗아  
갔습니다! 고려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려 사람이었다. 이제 고려로 돌아가자!”  
이성계는 아버지를 따라 고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들을 이끌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성계가 쏜 화살이 왜구의 장군을 맞혔습니다. 왜구는 달아났고 이성계는 백성들을 지켜 냈습니다. 백성들은 이성계를 좋아했습니다.

“이성계 장군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셨어!”



고려의 장군이 된 이성계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몽주가 있었고,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힘있는 귀족들과 승려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백성들은 전쟁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고려는 나아질 수 없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해!”  
정도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고려는 다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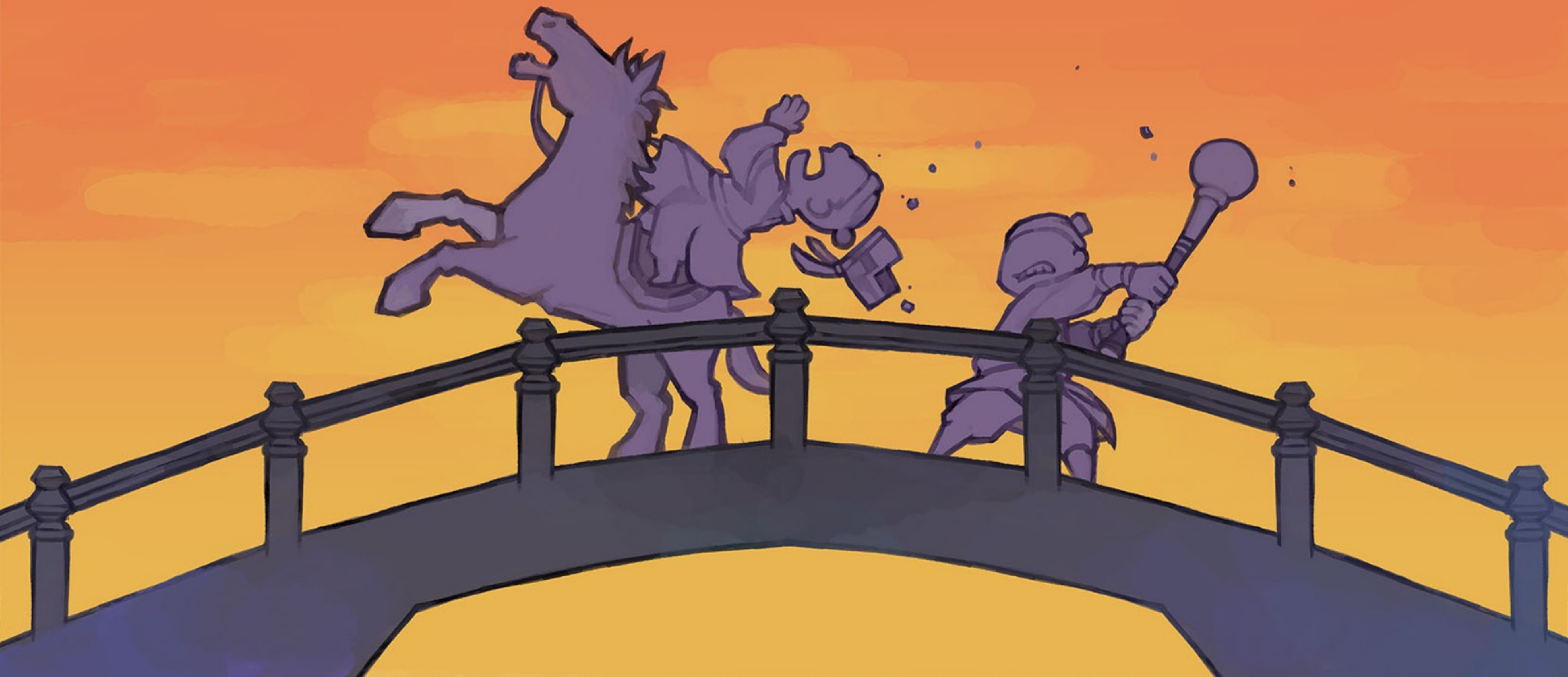


그때 원나라는 약해졌고 명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고려는 명나라와 사이가 나빴고, 이성계는 명나라를 공격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고려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려의 대신들은 이성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위화도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대로 싸워 봐야 전쟁에서 질  
뿐이야.” 마침내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한 대신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성계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정도전이 그랬습니다.  
고려를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사람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정몽주가 그랬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멀망한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가 되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